스승의 가르침, 제자의 끝없는 나눔으로

스승의날, 師弟에게 듣다

포항 원법사

회주 운보 스님 · 주지 해운 스님

스승의 날을 앞두고 포항 비학산 자락에 자리한 원법사(대한불교유식종)를 찾았다. 2000년 작은 천막 법당에서 시작해 현재 신도 수 2만여 명의 대가람이자 전국 최초 '사찰형 민간정원'으로 성장한 원법사. 그 중심에는 유식(唯識) 사상을 실천으로 증명해 온 회주 운보 스님과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끝없는 나눔 포교를 펼치고 있는 주지 해운 스님의 각별한 사제지간의 인연이 있다. 이 시대 종교의 참된 역할과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묻기 위해 두 스님을 만나 그 가르침을 들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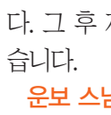


포항 원법사 회주 운보 스님(사진 오른쪽)과 주지 해운 스님이 원법사 극락전 앞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비구와 비구니의 경계를 넘어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모습이 현대사회에 울림을 주고 있다.

천막법당서 최초 '사찰정원'
2만 신도 도량 일군 원동력
布施는 '베풂' 아닌 '갚음'
회향심으로 실천하는 수행

Q 두 분 스님의 인연이 무척 각별하다고 들었습니다. 해운 스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생사의 기로에서 운보 큰스님을 처음 만나셨다고요.

해운 스님: 절에 와서 수행을 하거나 출가자가 된다는 것은 제 머릿속에 전혀 없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려 5년 가까이 사경을 헤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육신의 고통이 극심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시다 백약이 무효하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이곳 원법사 천막 법당이었습니다.



운보 스님: 처음 왔을 때는 병색이 아주 짙어 겨우 내려올 정도였지.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종교적 지도자로 갈 법(그릇)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어.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 함부로 사람을 다루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 수행을 통해 법을 받아봐야 알기 때문이지. 그래서 100일 기도를 시켰어.

해운 스님: 큰스님께서는 찾아온 저에게 법당 문을 벌컥 여시고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중생 구제를 할 테니 살려만 달라고 빌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나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중생 구제가 웬 말인가' 싶었지만, 시키시는 대로 엎드려서 처절하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위빠사나 수행을 하며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기적처럼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자연스럽게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운보 스님: 모든 기도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야. 성철 스님이 3천 배를 하라고 한 것도 다 나를 낮추라는 의미지.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으면 다 독이 돼. 기도를 하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반성이 나와야 진짜 수행이지.

Q 원법사는 최근 창건 25주년을 맞아 '대한불교유식종'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운보 스님: 사람의 몸뚱이는 그저 송장 덩어리일 뿐이고, 실체는 바로 '마음'이야. 마음이 곧 하늘이지.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돌부리에 차여 넘어지면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핑계를 대지.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밀쳐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부리를 만나 넘어지게 된 거야. 유식경전인 〈해심밀경〉은 머리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야. 철저하게 몸으로 체득하고 수행해서 자기 내면의 생리식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거지.

해운 스님: 맞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에 있다'는 것이 유식불교의 근간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제가 아플 때도 병의 원인을 마음에서 찾으라고 하셨죠. 우리는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묻기보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해결 중심의 명상을 지향합니다.

Q 원법사는 18년간 누적 1만 8천 포가 넘는 쌀 나눔과 특히 장학 사업으로 유명합니다. 나눔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운보 스님: 사람들은 보시(布施)를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 착각하는데, 보시는 베풀 '보'가 아니라 갚을 '보(報)'야. 돌아다니며 남에게 피해를 줬거나, 부모 대에 지은 빚이 있다면 자식 대에 와서 하는 일이 자꾸 막히게 돼. 이런 빚을 사회에 환원하고 갚아야 가정이 풀리고 삶이 달라져. 절에 들어온 돈은 공적인 돈이야. 이 돈을 개인적으로 다 써버리면 천벌을 받고 대대손손 망하게 돼 있어. 남의 돈을 받았으면 적선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먼저야.

해운 스님: 제가 출가 후, 큰스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 전에 들어온 공양미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20kg 쌀 20포로 시작해 1년에 평균 1,000포씩 18년간 1만 8,100여 포를 나눴죠. 하지만 초창기에는 사찰 내부의 반발이 컸습니다. 어느 해 쌀 600포가 들어왔는데 절에 4포만 남기고 다 나누자, 보살님들이 '우리는 뭐 먹고 사냐'며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는 어떻게든 살지만, 저분들은 이게 없으면 힘들다. 나눔은 갚는 것이며 수행의 일부다'라고 꾸준히 알렸습니다. 지금은 신도님들이 태풍, 산불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봉사에 앞장설 만큼 자비롭게 변하셨습니다.

Q 큰스님의 가르침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눔의 일화가 있습니까?

해운 스님: 출가 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양주 보살님에게 '나한테 좋은 음식 주려고 냉장고에 좋은 재료 재어놓지 마라'고 신신당부하신 점이었어요. 그 아낌없는 나눔의 철학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큰스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신도든 행인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찾아오시는 모든 분께 따뜻한 한 끼를 권하셨어요. 절집 살림이 넉넉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늘 그러셨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베푸는 것이 곧 부처님의 일'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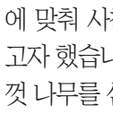
이 가르침이 그대로 원법사 장학회로 이어졌습니다. 동국대 재학 시절 받은 장학금에 대한 마음과, 큰스님의 말씀이 만나서 2015년 장학회를 정식으로 출범시킬 수 있었어요. 매년 동지에 팥죽을 쑤고, 설날에 쌀을 나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이것이 큰스님께서 남겨주신 회향의 원칙입니다.

Q 장학 사업의 규모도 엄청납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지역 미래 불자 육성장학' 1호 기부자이기도 하신데요.

해운 스님: 제가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재학 시절 전액 장학금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후배들에게 돌려주고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학업을 포기할 위기에 처한 경북 출신 유학생들을 위해 동국대 서울캠퍼스에 장학금을 전달했죠. 이 소식이 일종의 마중물이 되어 전국 사찰이 참여하는 대규모 릴레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동력은 단순합니다. 회향 발원이 2015년 1월 원법사장학회 정식 설립으로 이어졌고, 2021년 동국대 서울캠퍼스 '지역 미래 불자 육성장학' 1호 기부자로 이어졌습니다. 동국대 WISE캠퍼스에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47명의 학생에게 4억 4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이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너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학생이 자라서 사회의 동량이 되고, 또 다른 후배에게 그 마음을 회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저희 장학생들이 매월 1만원씩 1년간 장학회에 재기부 약정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Q 최근에는 글로벌 장학으로도 범위를 넓히셨다고요.



해운 스님: 네, 장학 수여가 100회를 맞이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한국티벳 불교 장학협회를 결성해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인가를 받고 부처님 진신사리도 하사받았죠. 현재 티베트 출신 유학생 3명이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만든 한과 수익금, 카페 수익금 등을 악착같이 모아 전부 장학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국대 약학대학에 '약사여래'라는 불교동아리가 창립되었고, 불교동아리들이 잇따라 탄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자는 이 시대의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 전에도 가장 진보적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가장 첨단의 사상입니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 법을 만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길에 원법사가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Q 사찰 카페부터 정원 등 원법사 도량은 돋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운 스님: 우리는 천막 법당 시절부터 명상 수행(위빠사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명상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량에 염불 소리를 크게 틀어놓지 않죠. 대신 현대인들의 니즈에 맞춰 사찰을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신도회장님 내외가 7년간 정성껏 나무를 심어 전국 최초로 '사찰형 민간정원'으로 등록되었고, 신도분들이 저마다 구획을 맡아 관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퓨전 다도와 '수라간'이라 불리는 사찰 음식팀의 정갈한 음식도 원법사의 자랑입니다. 종교가 달라도 누구나 정원에서 위로를 받고,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장학 불사에 동참합니다. 천주교인이나 비불자들도 오셔서 감동받고 십시일반 장학금 약정서를 써주실 정도니까요.

18년 이어온 자비의 쌀 나눔
매년 1000포 불우이웃 전달
2015년 '원법사장학회' 출범
747명에 4억5천여만원 전달

Q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서 불교와 사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운보 스님: 앞으로 종교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그 마음 속에 맺힌 응어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려있지. 그래서 원법사에서는 스스로 마음의 문제를 풀어내는 수행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며칠씩 묵으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장소를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야.

해운 스님: 큰스님 말씀처럼,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을 세상 속으로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저희 원법사는 누구나 와서 쉬어가는 명상 정원이자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으로 남겠습니다. 부처님 지혜와 자비가 고통받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삶의 해법이 되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갚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개산재에 열린 제21회 장학금 수여식.



동국대 미래장학에 1회, 101회 등 10여 차례 참여했다.



나눔 실천을 행하는 두 사제의 미소가 꽃보다 아름답다.



꽃이 만발한 조사전. 계곡따라 전각이 자리하고 있다.



원법사 까페 '인연' 모습. 수익금은 인재 불사에 쓰인다.